



김소희(왼쪽)는 18일(한국시간) 카리오카 아레나 3관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에서 티아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를 꺾고 금메달을 땄다. 타고난 스피드와 승부욕은 김소희의 치명적 매력이다.

끝까지 가슴 졸인 태권여제의 대관식



남장현의 여기는 리우 | 중주국 자존심 지킨 김소희

종료 직전 판정 번복될까 조마조마
극적인 리우행...더 극적인 금메달

1초가 마치 1년처럼 느껴졌다. 지루하고 숨 막히는 적막이 흘렀다. 상대가 요청했던 영상 판독의 시간은 정말 길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그 순간, 체육관 곳곳에 내걸린 태극기들이 아름답게 물결쳤다.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가 꼭 막혔던 대한민국 선수단의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맥을 뚫었다. 13일(한국시간)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찬(23·현대제철) 이후 닷새 만에 7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2014인천아시안게임(46kg급)에서 우승한 '태권소녀' 김소희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큰일을 냈다. 18일 브라질 리우의 카리오카 아레나 3관에서 벌어진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에서 티

아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를 7-6으로 꺾고 새로운 여제의 탄생을 알렸다.

이날 경기는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63) 위원장이 직접 관전해 눈길을 끌었다. 여자 49kg급 동메달 결정전이 진행 중일 때 입장한 바흐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WTF) 조경원(69) 총재와 함께 앉아 김소희의 결승전을 지켜본 뒤 자리를 떴다.

김소희에게는 간접 실족전이기도 했다. 과거 2차례 대결에서 번번이 패배를 안겼던 이 체급의 최강자 우정위(중국)를 보그다노비치가 8강전에서 제압했기 때문이다. 직접 이기진 못했지만, 김소희가 우승하면 우정위를 꺾는 셈이었다.

물론 우승을 향한 과정은 멀고도 험난했다. 디에스 칸세코(페루)를 16강전에서 완파하고 8강에 올랐으나, 한국인 지도자의 체계적 교육을 받은 파니파크 옹파타나키트(태국)의 거센 도

전에 휘말려 하마터면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날 뻔했다. 아지예즈 야스미나(프랑스)와의 4강전을 1-0으로 간신히 통과했고, 보그다노비치와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1라운드 2-1로 앞선 뒤 2라운드에서 1점을 내주고 3점을 보태 5-2로 낙담한 리드를 잡았다. 고비는 3라운드에 찾아왔다. 체력이 떨어지고 수세에 몰리며 점고 7장을 받아 위기에 직면했다. 종료 직전에는 상대의 공격까지 허용해 영상판독 요청의 여지를 줬다. 만약 여기서 점고를 추가로 받았다면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판정 번복은 없었다. “거의 시간이 끝난 것을 보고, 준비하러다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다행히 하나만큼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녀의 행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올림픽 랭킹 6위까지 자동출전권이 주어졌는데, 9위권을 유지하다 경쟁자가 밀려나면서 극적으로 리우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물론 운이 전부는 아니다. 누구보다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 2011년 세계선수권 시상대 꼭대기에 섰을 때 손가락뼈가 튀어나오는 큰 부상을 입고도 도핑테스트를 의식해 진통제를 먹지 않는 투혼과 근성을 보인 악바리 중의 악바리다. 심지어 모기업의 후원으로 리우 현장을 찾은 부모님과 만났고 끝까지 피했다. 결국 올림픽 챔피언에 등극했다. “리우에 오기 전에 금메달을 선물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꿈이 이뤄졌다. 너무 행복하다.”

스포츠1부 기자 yoshike3@donga.com

? 김소희 ▲생년월일=1994년 1월 29일 ▲키·몸무게=165cm·50kg ▲출신교=제천동중~서울체고 ▲소속=한국가스공사 ▲세계랭킹=10위 ▲수상 내역=2011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 금메달, 2013부에블라세계태권도선수권 금메달,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2015모스크바그랑프리 1차대회 금메달,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메달

김태훈, 그랜드슬램은 도쿄서

16강서 태국 한프람에 충격적 패배
패자부활전 끝에 값진 동메달 획득

김태훈(22·동아대)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태권도의 희망이었다. 2013년 푸에블라·2015년 카잔세계선수권, 2014년 타슈켄트아시아선수권과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4대 국제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 도전이었다. 스스로도 “금메달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18일(한국시간) 카리오카 아레나 3관에서 펼쳐진 남자 58kg급 경기는 김태훈이 태권도 인생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생애 첫 올림픽이라는 부담감이 김태훈의 발목을 잡았다. 16강전에서 세계랭킹 46위 타원 한프람(태국)에게 10-12로 졌다. 그야말로 충격적 패배였다. 7-7로 맞선 3라운드 종료 1분여를 남기고 3점짜리 머리공격을 허용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한 번 넘어간 분위기를 되찾아오지 못했다. 4년을 준비한 올림픽이 단 1경기 만에 끝날 위기였다. 김경훈 스포츠동아 태권도해설위원은 “김태훈이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태훈도 “국제대회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올림픽 무대는 긴장됐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김태훈이 동메달을 목에 걸 기회가 주어졌다. 다소 색다른 태권도 종목의 패자부활전 방식도 한몫했다. 16강·8강전에서 결승 진출자에게 패한

4명의 선수가 패자부활전을 치른다.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준결승에서 패한 2명의 선수와 2개의 동메달을 놓고 맞대결하는 방식이다.

김태훈은 한프람에게 8강전에서 패한 사프완 카릴(호주)과의 패자부활전에서 4-1로 승리하며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다. 여세를 몰아 카를로스 루벤 나바로 발데스(멕시코)마저 7-5로 꺾고 극적인 동메달을 땄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메달이었다. 김태훈은 “첫판에서 진 뒤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못해 우울했는데, 그 선수(한프람)가 결승에 올랐더라. 운이 따라줘서 좋은 기회가 왔다. 메달을 따낸 것만으로도 영광이다”고 말했다. 김태훈의 꿈은 소박하다. “은퇴 전까지 태국마크를 달고 세계무대에 계속 서는 것은 물론, 4년 뒤 도쿄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 이번 올림픽을 발판 삼아 완전체로 진화할 김태훈이 기대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김태훈 ▲생년월일=1994년 8월 15일 ▲키·몸무게=183cm·60kg ▲소속=동아대 ▲세계랭킹=2위 ▲수상 내역=2013푸에블라세계태권도선수권 금메달,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2014타슈켄트아시아태권도선수권 금메달, 2015가잔세계태권도선수권 금메달,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동메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올린 태극기였다. 김태훈이 18일(한국시간) 카리오카 아레나 3관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를로스 루벤 나바로 발데스(멕시코)를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우데자네이루 | 뉴스시스

태극전사들이여, 일감을 주소서

봉 지아 리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의 현장을 찾은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드는 MPC(메인 프레스센터)에는 항상 인파가 가득합니다. 이곳을 거쳐야만 각 경기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탑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층빌딩인 MPC 내부의 작업실은 늘 자리가 넘쳐났습니다. 지구촌 5000여명의 취재진이 각자 계획에 따라 어디론가 구석구석의 현장으로 떠나기에 비어있는 책상과 의자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모이는 이른 아침과 속소(미디어 빌리지)로 돌아가려는 늦은 밤이 꽤야 절반 정도의 공간이 가파스로 찰 정도였죠.

대회가 종착역에 다다른 지금의 풍경은 중반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빈 공간이 갑자기 크게 줄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노트북을 열고 작업하는 기자들로 붐빉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광경이 연출됐을까요? 아무래도 자국 선수단의 성적과 상황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속소에서 저와 함께 생활하는 포르투갈 출신 롬메이트도 대회 첫 주에는 바빠서 서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라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오가 돼야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더군요. “포르투갈의 올림픽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야. 대회 초반에는 우리 선수단의 경기를 점검하고, 브라질을 소개하는 주요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느라 좀 바빴는데 이제 일이 많지 않아. 하루에 프로 기사 1개 정도를 시간 맞춰 보내면 끝나.”

그렇습니다. 갈 만한 행선지가 줄면서 MPC로 몰리는 것이죠. 여기에선 수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브리핑과

Rio2016 (18일 22시 현재 : 한국시간)

국가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미국	30	32	31	93
2	영국	19	19	12	50
3	중국	19	15	20	54
4	러시아	12	14	15	41
5	독일	12	8	9	29
11	대한민국	7	3	7	17

주요국 선수단의 공식 기자회견도 열리니까요. ‘수영왕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의 은퇴 발표도 미국수영대표팀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예상보다 메달 레이스에서 주춤 상황입니다. 유력 종목들이 일찌감치 짐을 싸면서 한국 기자들도 ‘일감’을 찾는 데 바상이 겠습니다. 고민 끝에 찾아가도 빈 손. 이곳 저곳에서 “오늘은 뭘 먹고 살아가느냐”는 푸념이 들려옵니다. 선수단이 승승장구해 일거리가 넘치고 바쁘면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은 답답하진 않거든요. 브라질 한량이 된 포르투갈 롬메이트가 그리 부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곳은 브라질-온두라스의 남자축구 4강전이 펼쳐지고 있는 마라카낭 스타디움 취재실입니다. 탁 트인 초록 그라운드와 시원한 풀 폭풍을 보니 꼭 막혔던 머릿속이 조금 맑아진 기분이지만 아쉬움도 납니다. 기왕이면 이 시간에 우리 선수들을 찾았어야 했는데, 시상식의 애국가를 틀어야 하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니다. 바쁘고 힘들고, 밤새도록 기사를 써도 줄으니 우리 태극전사·남자들이 끝까지 분전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세계태권도에 부는 ‘지도자 한류’ 열풍은 한국에는 곧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남자 58kg급의 김태훈(왼쪽)은 17일(한국시간) 벌어진 리우올림픽 16강전에서 최영석 감독이 지도하는 태국의 신예 타원 한프람에게 충격패를 당한 뒤 패자부활전을 통해 가까스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리우데자네이루 | AP뉴스시스

태극태권 위협하는 ‘지도자 한류’

비하인드 리우

지구촌 곳곳으로 진출한 한국인 지도자들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골프러운 적이 되기도 한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도 ‘지도자 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베트남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딴 호앙 쉐안 빈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감독님, 평규”라는 소감을 외쳤다. 그의 뒤에는 2014년 베트남으로 건너간 박충진(50) 감독이 있었다. 유도와 레슬링에도 한국인 감독이 있다. 중국남자유도는 정훈(47) 감독, 중국레슬링대표팀은 유영태(56) 감독의 가르침을 받는다. 대한민국 최초의 감독인 양궁의 ‘지도자 한류’ 역시 엄청나다. 항공모함 위에서 바람작을 훈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양궁대표팀의 이기식(59) 감독 등 대략 10명의 한국인 지도자가 외국 선수단을 이끌었다.

한국의 전통적 메달밭인 태권도에서도 한류가 거세다. 태국이 이 종목 첫날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태권도 남자 58kg급의 김태훈(22·동아대)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지만, 17일 첫판(16강전)에서 태국의 18세 신예 한프

람에게 일격을 당했다. 예상치 못한 패배로 패자부활전에 나서게 된 김태훈이 경기 후 향한 곳은 2002년부터 태극태권도대표팀을 지도해온 최영석(42) 감독이었다. 태국왕실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그는 철두철미한 분석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며 유망주를 키워다. 물론 최 감독은 마냥 행복해할 수는 없었다. “이겼어도 차마 웃지는 못하겠다. 난 한국인이다.” 중주국 에이스에게 충격적 패배를 안긴 한프람은 결국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태국은 한국을 또 한 번 피 말리게 했다. 여자 49kg급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도 하마터면 태국선수에게 무너질 뻔했다. 파니파크 옹파타나키트가 18일 벌어진 8강전에서 김소희를 괴롭혔다. 종료 직전까지 2-4로 밀리다 4초를 남기고 얼굴 공격을 성공시킨 김소희가 준결승에 올랐지만, 분명 큰 위기였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옹파타나키트는 결국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을 땄다. 최 감독은 “태국인들의 느긋한 천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강하고 독하게 훈련시켰다. 이제야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웃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